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발달장애학생 부모 창업 요인에 대한 연구*

곽 범 준(제1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원 (석사)

배 병 윤(공동저자)

한라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조교수)

송 용 옥(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A Study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wak, Bum Jun(First Author)

The Graduate School Of Government and Business, Yonsei University (Master)

Bae, Byung Yun(Co Author)

School of Global Business, Ha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ong, Yong Uk(Corresponding Auth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Professor)

* 본고는 곽범준의 2021년도 석사학위 논문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작성한 것임

Abstract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quire much more parental care during their whole life than other types of disabilities, which leads to parent's burdens from the care and support, career discontinuity, and so forth. So, we may expect that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the company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ll lead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creation of jobs. At thi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arents of those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arents, and on the other hand, proactiveness has no effects on self-efficacy and innovativeness has no effect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arents. It was also found that self-efficacy mediates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arents. These findings would be useful for government to arrange startup program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io into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parents of those children.

Keywords : *sustainability management*,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접수일(2022년 04월 28일), 수정일(2022년 05월 29일), 게재확정일(2020년 05월 30일)

I. 서론

가족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 환경으로 모든 구성원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내부나 외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상호 유기적인 가족체 계에서 장애자녀의 발생은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에 비해 신체적, 심리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편히 눈을 감을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들은 매일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무처부당(無

處不當)의 마음으로 자녀와 자신의 삶을 위한 힘든 도전에 날마다 직면한다(Peggy Lou Morgan, 2009).

발달장애인은 젊은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적은 편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청년 취업률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2017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미국(26.0%)과 일본(48.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스위스(69.0%, 1위)나 핀란드(60.8%, 5위)와 같은 나라에 비하면 아직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무엇보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부모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의존과 부양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부모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특수학교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모델을 분석한 이윤우와 한경근(2011)은 장애인 중심 기업 모델을 제안하며 가족 창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남영호(2020)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연구 동향과 과제를 논의하며 한가족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한경근, 2020).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과 창업가정신 구성요소의 특성을 파악하여 발달장애학생 부모 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학생 경제참여율 제고에 목적을 두고,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여 가설 수립,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발달장애의 개념, 발달장애학생 현황 및 특성,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특성, 창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모형을 수립하였으며, 3장에서는 이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실증연구 결과를 분석, 토의한 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II. 문헌연구

2.1 발달장애의 개념 및 현황

2.1.1. 발달장애의 개념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라는 용어는 1960년대 초기 ‘정신지체’에 관한 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의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건축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ct of 1970, P.L. 91-517)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 그 당시 발달장애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여러 신경학적 장애로 정의되었다(Accardo and Whitman, 1996).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발달장애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초기에는 발달장애 개념을 자폐증으로 명시하였다(이승희·조홍중, 2001). 대한특수교육학회에서는 발달장애 범주를 정신지체, 자폐증, 뇌손상, 미소뇌기능장애, 과잉행동, 발달의 불균형, 최소신경학적 장애, 인지능력 손상, 언어장애, 난독증, 간질, 뇌성마비 등으로 정의하였다(원상화, 2014).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발달장애를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이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8).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폭넓은 발달장애인 개념에 근거하여 중도의 지적장애를 수반하고 인지, 운동, 감각, 행동 등의 영역에서 중복으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를 발달장애 유형에 포함하였다.

2.1.2 발달장애학생 현황 및 특성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95,420명 중에서 발달장애학생은 64,610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67.7%에 해당한다. 그중 발달장애인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수는 2018년에 48,747명에서 2019년에는 49,624명으로 1.8% 증가, 2020년에는 50,693명으로 2.2% 증가하였으며, 자폐성 장애인도 2018년 12,156명에서 2019년 13,105명으로 7.8% 증가, 2020년에는 13,917명으로 6.2% 증가하여 매년 약 8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발달장애는 행동적 특성과 발달 능력이 전 생애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출생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며, 지적장애, 언어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시청각의 문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여러 장애유형을 동반하기도 한다(남민, 2011).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나 자기 결정과 같은 기능이 어려워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성희 등, 2013). 발달장애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소통과 부적응, 사회적 기술과 참여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고용, 결혼 등과 같은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에도 완화되

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어 부모와 가족의 부담이 무겁고(이경림·박주홍, 2013), 돌봄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이 어느 장애유형보다 강조되는 영역이다(심석순, 2013).

2.1.3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특성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일반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이의 발달적 후퇴로 인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가족 간 또는 가족과 사회 간의 갈등을 지속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자신을 향한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발달장애 부모의 역할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장애인들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함께 노화를 경험해 가는 부모들에게 돌봄 부담의 증가가 필연적인 것이며, 돌봄 부담에 더해 친인척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의 여가활동 등에서의 배제는 부모들에게도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장애로 다가오게 된다(이상복·김춘희, 2001).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가족 기능은 많이 축소되었으나,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자녀의 양육과 보살핌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가족 기능이 더욱 중요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가족 기능이 필요할 때가 많다(김정득, 2010; 장혜리, 2018).

2.2. 발달장애인과 가족기업

한경근(2020)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기업 창업 관점에서 가족기업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가족 기업 창업의 의미, 발달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공과 진로, 직업교육의 방향을 탐구하였다. 가족기업 창업 계기 측면에서는 양육을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 자녀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 가족기업 창업에 대한 도전과 기대가 창업 계기로 조사되었다. 가족기업 창업의 의미 측면에서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곳, 가족기업 구성원 간의 가족만큼 특별한 관계가 창업의 의미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측면에서는 자녀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던지, 금전적인 성과가 바로 없다고 보여지는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단순히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물품이라 구매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물건이 아니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품 가치가 높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

요한 점으로 조사되었다. 전공과 진로, 직업교육의 방향 측면에서는 교육의 장점으로 자녀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이라는 점과 자녀들의 특성을 공감해주는 환경을 우선으로 꼽았다. 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조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전문적인 외부의 창업교육과 컨설팅과 같은 균형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점도 지적되었다(한경근, 2020).

2.3.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2.3.1 창업가정신

창업가정신 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 Schumpeter(1934)에 의해 경제학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는 창업가정신을 기업 조직에 실행 원재료의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형태의 조직 등 새로운 조합을 수행하는 활동(구본혁, 2019)으로 보았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Drucker(1985)는 ‘문제해결, 시장 확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설명했으며, Timmons et. al.(1994)는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추론, 행동 방식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박남규 등, 2015; 구본혁, 2019).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 또는 ‘기업가 지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업가정신의 어원인 프랑스어 ‘Entreprendre’는 ‘착수하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초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만 뜻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박재성, 1973; 노재구, 1999)을 참고해 볼 때, ‘기업가(businessman)’와 구별되는 고유한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강순빈, 2012).

창업가정신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Cantillon(1955)은 창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이라는 단일요소로 정의하였고,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이라는 단일요소로 정의하였다(이춘우, 1999). 창업가정신을 창업가의 심리상태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조직 차원에서 창업가정신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3개로 수렴되었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강병오,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수(2009) 등의 정리를 바탕으로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구분하였다.

(1) 혁신성

혁신성은 1934년 Schumpeter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현재 창업가정신의 원형이자 대표적인 속성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송홍규, 2013). 또, 혁신성은 창업가가 혁신을 차별성 있는 특별한 도구로 인식하고 서로 상이한 사업들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간주(Morris et al., 2008; 강경란, 2019)하였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노력(송홍규, 2013)이라고도 하였다.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규 사업화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이윤 원천을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개인 기업가와 조직까지 포함한다(노형진, 1998). 지속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개선을 위해 투자활동과 이를 통한 경영혁신은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강순빈, 2012).

그러므로, 혁신성은 기존의 경영활동에 벗어나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진취성

진취성(proactivity)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창업가의 노력을 의미한다(성창수, 2011; 김영중, 2014). 이러한 진취성에 대한 연구는 창업가 개인 수준의 연구와 조직 수준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성창수, 2011). Buss(1987)는 창업가를 환경에 대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진취성이 기업가정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특성요인으로 주장하고, 창업가는 내외부 환경요인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설명하였다(성창수, 2011). Bateman and Grant(1993)는 진취성을 환경의 영향에 대응하는 개인의 진취적 활동성향으로 정의하였고, 위홍복(2003)은 강한 진취성이 창업자에게 시장에서의 변화나 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기업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송홍규, 2013).

따라서 진취성은 시장 상황에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장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남들보다 가장 먼저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속하게 혁신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홍규, 2013). 또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 미래의 수요에 대처하고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송홍규, 2013).

(3)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길대호, 2019). Cantillon(1955)은 창업가를 ‘자신의 자본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을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길대호, 2019). 이후 위험감수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창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어왔다(강병오, 2010). Morris and Lewis(1995)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감수성향, 사고방식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강경란, 2019). Keh et al.(2002)은 창업가정신을 확

신이 없고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몰입하는 전략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Hitt et al.(2001)은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창업가정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 혁신적으로 행동하려는 행동적 접근이라고 하였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7; 윤의정, 2012). 사회학습이론(Bandura, 1997)에 뿌리를 둔 자기효능감은 다른 개인적 특성보다 창업가의 행동 선택, 지속성 및 효과성을 예측하고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Utsch and Rauch, 2000).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로, 주어진 영역에서 개인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에 기초한다(Bandura, 1989, 1997; Wilson et al., 2007).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힘이 더 크다. Krueger and Brazeal(1994)은 실질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진로행위와 관련성이 높으며,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해석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직업 분야에 대해서 이미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Hackett and Betz, 1981).

인간은 모든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인간마다 각자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얼마나 끈기 있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결정은 그 사람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현정환, 1993). 자기효능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어려운 일을 추구하며, 둘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호한다. 셋째 스스로 동기 부여하며, 넷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다섯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울 때 참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Luthans et al., 2004; 문성식·전인오, 2017).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검증돼왔다. Gist and Mitchell(1992)은 과거의 경험과 예상된 미래의 장애물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병권, 2014). 특히 창업 과정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장애가 생기거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생기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과정에서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Shane, Locke, and Collins,

2003; 문성식·전인오, 2017; 김유경, 2018).

2.3.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을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Gartner et al., 199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적이고 의도된 행동들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Katz and Gartner, 1988). 박시사와 강성일(2007)은 창업의지를 기업설립과 관련한 첫 단계로,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설립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창업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두고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일정한 시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진행되며,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 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창업과정의 전반적인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필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ird, 1988).

Shapiro(1982)는 창업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가 사건모형'을 제시하면서 창업의지는 행동성향, 즉 창업에 대해 개인이 끌리는 정도로 측정되는 인지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와 개인이 창업에 대해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윤방섭(2004)은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잠재적 창업가들인 기업의 근로자나 학생들이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의지,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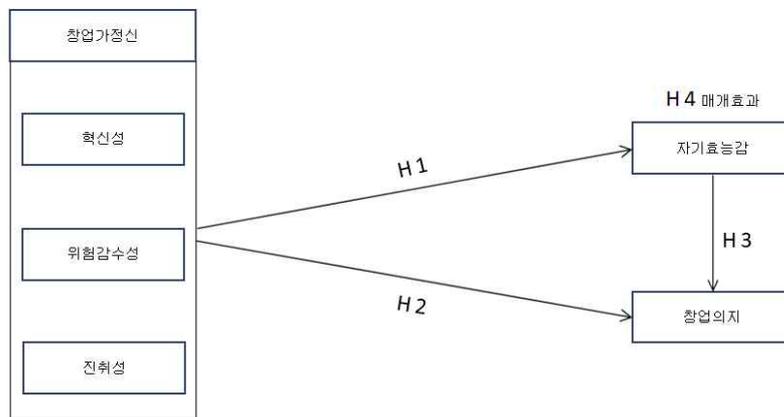
Reynolds et al.(2004)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환경, 개인의 삶과 경력 환경, 개인의 성향을 제시하였다. Naffziger et al.(1994)은 전체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가 개인의 특성, 가족관계, 성별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금획득의 용이성과 같은 사업적 환경, 구체적 사업아이디어, 창업행동이 이익과 매출, 시장점유율과 같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다(리신통, 2018).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창업의지를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 연구모형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기업 창업의 계기, 창업의 의미, 발달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전공과 진로, 직업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기업 창업의 계기와 의미에 대한 분석에서 자녀 양육과 장애에 대한 부담, 창업에 대한 자부심, 기대감, 도전 의식 등이 중요한 주제로 조사되었으므로, 발달장애인 가족기업 창업가의 경우 창업가정신의 하위개념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진취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일반 창업가와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H1: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에 자기효능감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혁신성은 자기효능감에 정(+)

H1-2: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위험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

H1-3: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진취성은 자기효능감에 정(+)

H2: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

H2-2: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

H2-3: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정(+)

H3: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실증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 2곳, 장애인복지관 2곳에 구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총 30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3월 9일부터 5월10일까지이다. 설문 205부가 회수되어 총 205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가설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발달장애학생 부모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143명 (69.8%) 여학생 62명(30.2%)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장애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6세 1명(0.5%), 7세 7명(3.4%), 8세 12명 (5.9%), 9세 18명(8.8%), 10세 19명(9.3%), 11세 22명(10.7%) 12세 12명(5.9%), 13세 16명(7.8%), 14세 8명(3.9%), 15세 20명 (2.9%), 16세 17명(8.3%), 17세 22명(10.7%), 18세 13명(6.3%), 19세 8명(3.9%), 20세 6명(2.9%) 21세 2명(1.0%), 22세 2명(1.0%)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 재학 학교는 초등학교 96명(4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8명(18.5%), 고등학교 62명 (30.2%), 전공과 9명(4.4%)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형태는 국립학교 168명(82.0%), 일반학교 특수학급 37명(18.0%)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00명(48.8%), 자폐성장애 63명(30.7%), 중복장애 42명(20.5%)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2명(98.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명(1.5%)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남학생	143	69.8	재학학교	초등학교	96	46.8
	여학생	62	30.2		중학교	38	18.5
	합 계	205	100.0		고등학교	62	30.2
연령	6세	1	.5		전공과	9	4.4
	7세	7	3.4		합 계	205	100.0
	8세	12	5.9		국립학교	168	82.0
	9세	18	8.8	일반학교 특수학급	37	18.0	

	10세	19	9.3	장애유형	합 계	205	100.0
	11세	22	10.7		지적장애	100	48.8
	12세	12	5.9		자폐성장애	63	30.7
	13세	16	7.8		중복장애	42	20.5
	14세	8	3.9		합 계	205	100.0
	15세	20	9.8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변경전 1,2,3급)	202	98.5
	16세	17	8.3				
	17세	22	10.7				
	18세	13	6.3				
	19세	8	3.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변경전 4,5,6급)	3	1.5
	20세	6	2.9				
	21세	2	1.0				
	22세	2	1.0				
	합 계	205	100.0	합 계	205	100.0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인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23명(11.2%), 여성 182명(88.8%)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로는 40대 129명(62.9%), 50대 41명(20.0%), 30대 30명(14.6%), 60대 4명(2.0%), 기타 1명(0.5%)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으로 300만원 이상 130명(63.4%), 250~300만원 미만 23명(11.2%), 200~250만원 미만 19명(9.3%), 150~200만원 미만 18명(8.8%), 100~150만원 미만 15명(7.3%) 순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23	11.2	월수입	100~150만원 미만	15	7.3
	여성	182	88.8		150~200만원 미만	18	8.8
	합 계	205	100.0		200~250만원 미만	19	9.3
연령	30대(31세~40세)	30	14.6		250~300만원 미만	23	11.2
	40대(41세~50세)	129	62.9		300만원 이상	130	63.4
	50대(51세~60세)	41	20.0		합 계	205	100.0
	60대(61세~79세)	4	2.0				
	기타	1	.5				
	합 계	205	100.0				

3.2 변수의 조작적정의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은 Tipton and Worthington (1984)이 자기효능감에 대해 대상자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18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창업가정신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 창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선행연구 강재학과 양동우(2016)을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각 5문항 총 15개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실행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창업의지의 측정은 Linan(2008)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6문항으로 설문 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설문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를 1~5로 평가하였다

3.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창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창업의지를 측정한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0.7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으로 베리맥스법을 사용하여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인 변수들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인 범주로 근거를 결정하였다. 요인분석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 (Kaiser-Meyer-Olki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9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0.5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한다.

창업가정신의 일반속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KMO 값이 0.87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에 대한 해당 문항의 요인적재량 모두 0.5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 요인별로 잘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측정 변수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분석에서도 Cronbach α 값이 혁신성 0.864, 위험감수성 0.779, 진취성 0.822로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창업가정신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혁신성 1	.544	.588	.039	.864	.864
혁신성 2	.844	.175	.187	.817	
혁신성 3	.715	.256	.364	.820	
혁신성 4	.683	.238	.290	.840	
혁신성 5	.747	.249	.230	.834	
위험감수성 1	.282	-.014	.790	.704	.779
위험감수성 2	.471	-0.13	.663	.713	
위험감수성 3	.271	.229	.711	.694	
위험감수성 4	.061	.425	.609	.785	
진취성 1	.239	.571	.422	.790	.822
진취성 2	.089	.702	.152	.805	
진취성 3	.247	.788	-.019	.785	
진취성 4	.087	.601	.540	.792	
진취성 5	.407	.736	.151	.765	
요인분석의 적절성	KMO				.87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수준				.000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자기효능감, 창업의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KMO 값이 0.90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기에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요인분석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이며, 각 요인별로 잘 묶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간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성 분석에서도 Cronbach α 값이 자기효능감 0.910, 창업의지 0.944 계산되어 기준값인 0.7 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요인2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자기효능감 1	.789	.123	.899	.910
자기효능감 2	.783	-.008	.900	
자기효능감 3	.745	.084	.901	
자기효능감 4	.744	.165	.901	
자기효능감 5	.711	.277	.900	

자기효능감 6	.697	.099	.903	.944
자기효능감 7	.675	.229	.903	
자기효능감 8	.673	.191	.904	
자기효능감 9	.662	.007	.904	
자기효능감10	.662	.192	.903	
자기효능감11	.643	.252	.905	
자기효능감12	.591	.182	.906	
자기효능감13	.522	-.029	.913	
창업의지 1	.043	.937	.947	
창업의지 2	.057	.923	.939	
창업의지 3	.082	.916	.933	
창업의지 4	.237	.860	.926	
창업의지 5	.193	.826	.929	
창업의지 6	.298	.750	.929	
요인분석의 적 절 성	KMO			.90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수준			.000

3.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혁신성은 위험감수성($r=0.615$, $P<0.01$), 진취성($r=0.658$, $P<0.01$), 자기효능감($r=0.573$, $P<0.01$), 창업의지($r=0.456$,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험감수성은 진취성($r=0.550$, $P<0.01$), 자기효능감($r=0.646$, $P<0.01$), 창업의지($r=0.473$,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취성은 자기효능감($r=0.479$, $P<0.01$), 창업의지($r=0.445$,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r=0.370$,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1. 혁신성	1				
2. 위험감수성	.615**	1			
3. 진취성	.658**	.550**	1		
4. 자기효능감	.573**	.646**	.479**	1	
5. 창업의지	.456**	.473**	.445**	.370**	1

3.5. 회귀분석 결과

3.5.1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창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F값은 136.958, 수정된 R2는 0.4로 설명력 40.0%를 보였고, $\beta=0.635$, $t=11.703$, $P=0.000$ 으로 창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가정신 3가지 요인의 변수와 자기효능감 간의 분석 결과, F값은 55.610, 수정된 R2는 0.445으로 설명력이 44.5%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확률은 0.000으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며 Durbin-Watson 값은 2.034로 2의 기준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유의확률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창업가정신 3가지 요인 중 혁신성($\beta=0.244$, $t=3.228$, $P=0.001$), 위험감수성($\beta=0.452$, $t=6.622$, $P=0.000$)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진취성($\beta=0.061$, $t=0.850$, $P=0.396$)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창업가정신에 대한 자기효능감 회귀분석 결과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β	t	p	Durbin-Watson	결과
			B	표준오차					
H1	창업가정신	자기효능감	.633	.054	.635	11.703 ***	.000	2.104	채택
F=136.958, 유의확률=.000a, R2=.403, 수정된 R2=.400									
H1-1	혁신성	자기효능감	.579	.179	.244	3.228 **	.001	2.034	채택
H1-2	위험감수성		1.464	.221	.452	6.622 ***	.000		채택
H1-3	진취성		.141	.166	.061	.850	.396		기각
F=55.610, 유의확률=.000a, R2=.454, 수정된 R2=.445									

*P<.05, **P<.01, ***P<.001

3.5.2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F값은 78.889, 수정된 R2는 0.276으로 설명력 27.6%을 보였고, $\beta=0.529$, $t=8.882$, $P=0.000$ 으로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정신의 3가지 요인의 변수와 창업의지간의 분석결과 F값은 26.893, 수정된 R2은 .276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7.6%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보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Durbin-Watson 값은 1.771로 2의 기준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유의확률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창업가정신 속성 3가지 요인 가운데 위험감수성($\beta=0.266$, $t=3.412$, $P=0.001$), 진취성($\beta=0.188$, $t=2.303$, $P=0.022$)은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혁신성($\beta=0.169$, $t=1.951$, $P=0.052$)은 창업의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창업가정신에 대한 창업의지 회귀분석 결과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β	t	p	Durbin-Watson	결과
			B	표준오차					
H2	창업가정신	창업의지	.370	.042	.529	8.882 ***	.000	1.807	채택
F=78.889, 유의확률=.000a, R2=.280, 수정된 R2=.276									
H2-1	혁신성	창업의지	.280	.144	.169	1.951	.052	1.771	기각
H2-2	위험감수성		.604	.177	.266	3.412 **	.001		채택
H2-3	진취성		.306	.133	.188	2.303 *	.022		채택
F=26.893, 유의확률=.000a, R2=.286, 수정된 R2=.276									

*P<.05, **P<.01, ***P<.001

3.5.3 자기효능감에 대한 창업의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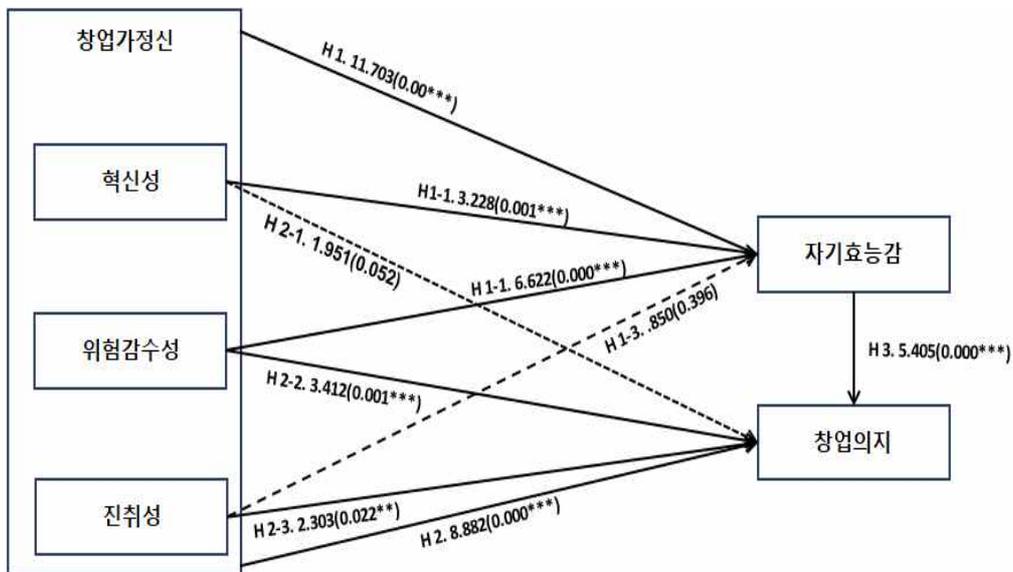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분석 결과 다음 <Table 8>을 살펴보면, F값은 29.209, 수정된 R2는 0.126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2.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확률은 0.000으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보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Durbin-Watson 값은 1.783로 2의 기준에 가까운 수치로 보여져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기에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유의확률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자기효능감은($\beta=0.355$, $t=5.405$, $P=0.000$)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효능감에 대한 창업의지 회귀분석 결과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p	Durbin-Watson	결과
			B	표준오차	β				
H3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249	.046	.355	5.405 ***	.000	1.783	채택
F=29.209, 유의확률=.000a, R2=.126, 수정된 R2=.121									

*P<.05, **P<.01, ***P<.001

<그림 2> 연구 가설모형의 검증결과



3.5.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란 독립변수와 같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순서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있는 변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정신 3 가지 요인 변수 중 자기효능감에 유의하지 않은 진취성을 제외한 혁신성과 위험감수 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추가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정신 요 인 변수 중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1, 2, 3단계의 유의 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의 독립변 수 B값이 0.378로서 2단계 B값 0.456보다 0.078 감소함으로써 부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매개효과란 독립변수인 혁신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투입으로 독립변수인 혁신성의 영향력은 줄고, 동시에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도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1, 2단계의 유의확률인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 P값이 0.287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독립/매개/종속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β	t값	p값	R2	결과
H4	혁신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단계 1	.518	8.625	.000	.268	채택
		단계 2	.456	7.301	.000	.208	
		단계 3(독립)	.378	5.221	.000	.225	
		단계 3(매개)	.150	2.078	.039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단계 1	.623	11.349	.000	.388	기각
		단계 2	.473	7.650	.000	.224	
		단계 3(독립)	.421	5.321	.000	.228	
		단계 3(매개)	.084	1.067	.287		

I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의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들의 창업가정신, 즉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3가지 요인 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창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가정신 3가지 요인 변수 중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정(+)의 영향을, 진취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리신룡(2019)의 중국동북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인시켜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 3가지 요인 변수 중 진취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부 창업 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박남규 등(2015)의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으나,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인 장애학생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의 집중적인 돌봄과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 자녀가 보이는 다양한 문제행동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중 등의 원인과 고립감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전문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현경과 이일한(2016)의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기에 학문적으로도 충분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창업가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 투입으로 혁신성의 영향력은 줄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감수성은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창업의지에 창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구성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장애인 가족기업의 창업과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진작하고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국가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의 전공과가 설치된 2개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 2곳의 발달장애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표하기에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수를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아 부모들의 창업 이유는 경제적인 이윤에 앞서 자녀가 일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족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긍정적인 성취에 가치 또한 확인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는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창업 과정과 기업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 찾아가는 창업가정신교육 지원으로 부모 각자의 장점과 함께 창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함은 물론이고 발달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 가시적 성과에 대한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란, 박철우 (2019),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가치지향성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창업동아리활동의 매개효과와 함께, *한국창업학회지*, 14(6), 354-377.
- 강병오, 김진수, 안성식 (201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유통연구*, 15(4), 87-117.
- 강순빈 (2012),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사전준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기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재학, 양동우 (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493-507.
- 구본혁, 이호택 (2019), 시니어창업자 자기결정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 *마케팅논집*, 27(3), 29-45.
- 국립특수교육원 (2018),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국립특수교육원 (2020), 특수교육통계.
- 길대호, 정화영 (2019), 시니어세대의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야태비즈니스연구*, 10(2), 79-97.
-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23.
- 김영래 (2004),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과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관한 고찰, *경영사연구*, 35(0), 157-181.
- 김영중, 권영국, 윤혜현 (2014),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7(2), 7-26.
- 김유경 (2018),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득 (2010), 발달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형제의 가족적응성: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민 (2011), 아동심리치료에의 정신의학적 개입, 한국재활심리학회 학술대회, 61-92.
- 남영호 (2020), 우리나라 가족 기업의 연구동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42(2), 69-92.
- 노재구 (1999), 企業家 및 企業家精神에 관한 理論的 考察, *지역정책연구*, 충북연구원, 10(2), 183-213.
- 노형진 (1998), 기업가정신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1), 121-137.
- 대한특수교육학회 (2000), 특수교육용사전
- 리신룡 (2019), 중국동북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

- 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식, 전인오 (2017),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물류학회지*, 27(5), 135-147.
- 박남규, 김명숙, 고종욱 (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상용 (2003), 벤처企業 CEO의 企業家精神, 構成員의 임과워먼트, 組織有效性的의 關係에 對한 構造的 模型,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시사, 강성일 (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재성 (1973), 한국의 기업가 행태의 연구, 한양대학교 논문집, 제7집.
- 성창수 (2009),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창수 (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3), 109-133.
- 송흥규 (2013), 경영성과에 미치는 창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6(4), 97-118.
- 심석순 (2013), 성인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돌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1-23.
- 원상화 (2014),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 신체표현활동의 의미와 방향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29-51.
- 위홍복 (2003), 기업가정신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방섭 (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윤의정 (2012),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립, 박주홍 (2013),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부담과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5(2), 349-373.
- 이병권, 전인오 (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213-230.
- 이상복, 김춘희 (2001), 통합교육 프로그램 형태와 유치원 유아의 언어행동 관련 장애인식 변화, *난청과언어장애*, 24(1호), 171-184.
- 이승희, 조홍중 (2001), 발달장애 개념에 대한 특수교육학적 고찰, *발달장애연구*, 5, 17-30.
- 이윤우, 한경근 (2011),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모델 개발의 현황과 과제, *장애와 고용*, 2(3),

267-296.

- 이춘우 (1999), 조직 앙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경, 이일한 (2016),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111-120.
- 장혜리 (2018), 발달장애인 부모의 삶의 질 영향요인,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한눈에 보는 2017 장애인 통계, 서울: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경근 (2020), 발달장애인 가족 기업 창업사례가 시사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 *장애와 고용*, 30(3), 187-207.
- 현정환 (1993),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관한 연구동향과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12(1)호, 81-97.
- Accardo, Whitman (1996), Dictionar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erminology.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 Barringer, B. R. (1995), *The Performance Implication of Achieving a Fit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Dissertation of Ph.D.
- Bateman, T. S. and J. M. Crant (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42-454.
- Buss, D. M. (1987), Selection, evocation and mani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214-1221.
- Cantillion, R. (1955),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r en General, *Annales*, 10(4), 598-600.
- Covin, J. G. and D. P. Slevin (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s: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Covin, J. G. and D. P. Slevin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85–900.
-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N.Y.: Harper and Row.
- Gartner, W. B., B. B. Bird, and J. A. Starr (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6, 3–31.
- Gist, M. E., and T. R. Mitchell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Hackett, G., and N. E. Betz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itt, Michael, R. Ireland, Michael Camp, and Donald Sexton (2001), Strategic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Wealth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479–491.
- Katz, Jerome and William B. Gartner (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aufmann, Patrick J. and Rajiv P. Dant (1998), Franchising and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1), 5–16.
- Keh, H. T., M. D. Foo, B. C. Lim (2002), Opportunity evaluation under risky conditions: the cognitive processes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25–148.
- Krueger, Norris F. Jr. and V. Deborah (1994), Brazeal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Linan, F. (2008), *Skill and value perceptions: how do the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3), 257–272.
- Luthans, Fred, Kyle W. Luthans, and Brett C. Luthans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ntzberg, H. (1979),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NJ.
- Morgan, Peggy Lou (2009), *Parenting an Adult with Disabilities or Special Need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Plan for and Protect Your Child's Future*, New York: AMACOM.
- Morris, M. H. and P. S. Lewis (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Morris, M. H., D. F. Kuratko, and J. G. Covin (2008), *Corporate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Entrepreneurial Development within Organizations*, Thomson South-Western, Second Edition.
- Naffziger, D. W., J. S. Hornsby, and D. F. Kuratko (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Reynolds, P. D., W. D. Bygrave, and E. Autio (200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3 executive report, Babson Park, MA: Babson College.
- Schumpeter, J. E.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e, S., E. A. Locke, and C. J. Collins (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257-279.
- Shapiro, A. (1982), Self-renewing economics, *Economic Development Commentary*, 5(April), 19-22.
- Slevin, D. P. and J. G. Covin (1989),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Timmons, J.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Fourth Edition, McGraw-Hill, Boston.
- Tipton, R. M., & Worthington, E. L. (1984), *The measurement of generalized self-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 Utsch, A. and A. Rauch (2000), Innovativeness and Initiative as Mediators between Achievement Orientation and Venture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1), 45-62.
- Wilson, Fiona, Jill Kickul, and Deborah Marlino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저자소개

곽범준(smilejun@korea.kr)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선진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창업전략, 기업가정신, 장애인 및 가족 창업, 발달장애인 교육 등이다.

송용욱(yusong@yonsei.ac.kr)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핀테크, 프롭테크,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및 보안, 경영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응용 등이다.

배병윤(byungyun.bae@halla.ac.kr)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라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창업기업, 중소벤처 기업, 경영전략 등이다.